

남원시, 재난상황실 상시 '두각'

홍수 모니터링·음성통보시스템 등 구축... 전국 지자체 견학 줄이어

남원시 청사 3층에 위치한 재난 상황실은 아칸에도 불이 꺼지는 일이 없다.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평일 주야간 1명씩, 휴일 주간에는 2명, 야간에는 1명으로 근무체제를 편성하여 24시간 상시체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 상황실의 운영으로 어떠한 상황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와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16회에 걸쳐 연인원 38,000명에 19회에 걸쳐 2,147개소에 태풍과 호우 및 대설 등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난해 2월 레이더자랑의 전복 상황을 신속하게 관련부서에 전파하여 하천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하천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시청 재난 상황실에서는 태풍 등 자연재난 상황뿐 아니라 화재와 교통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에도 소방서와 동시에 경보음이 발령되어 신속한 사고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원시가 12년도에 9억원을 투입하여 재난 상황실에 설치한 홍수재해 모니터링시스템은 폭우로 인한 홍수 시 하천수량 및 유속 흐름과 하천 월류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남원시가 전국 지자체의 견학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충청권 28개 지자체 50여명 등이 견학을 와서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내용 및 운영방법 등을 견학을 한 바 있으며 현재도 각 지자체의 견학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남

원시가 재해예방 시스템 선진도시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원시는 이외에도 지난 2012년부터 재해 위험지역을 우선으로 재해 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폭우로 인한 홍수 등 재난발생시 방송 시스템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재난안전 상황실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언제 있을지 모를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파 및 보고 체계 확립으로 재난사고를 사고 초기에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시 관계자는 "연중무휴 24시간 빈틈없는 재난 상황실 운영으로 시민 안전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장류 산업관광' 본격화

스토리 여행·장류특구 관광공정투어관광 등 진행

순창군이 장류산업시설을 관광과 연계시키는 이른바 '산업관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순창군은 최근 열린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산업관광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장류특구, 가남농공단지, 인계농공단지 등 장류산업시설을 관광자원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관광'이란 1차 농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현장을 지역의 문화관광과 융복합한 관광형태이다.

이와 관련해 순창군은 이미,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2015년 문체부 산업관광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했으며 군비 4억원을 포함, 2년간 총 8억원을 투자해 관광산업활성화에 나서게 된다.

앞으로 운영될 관광프로그램은 고추장기행인 가정을 방문해 장을 담그고 장에 대한 담소를 나누는 스토리 여행과 관광산업해설사나 전문매니저와 함께하는 장류특구 관광, 청정원 공장투어관광, 사조해포 생산시설 투어관



순창 장류산업 현장 산업관광 (한국철민 견학)

관광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관광산업 해설사가 활동 중에 있으며, 산업시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한 견학코스나 홍보 시설 보완 등도 마무리돼 공장 장류 체험관 기능인 등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할 산업관광프로그램을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과 맞춰 각 교육기관의 현장체험교육

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현장을 통해 학생들이 제품개발연구원 등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 활동에 연계함으로써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순창군은 관광산업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순창=구인규 기자

산업관광육성조례 제정



임실군-엠에스테크 '더블up!' 장학금 전달식

12명 학생에게 전달

임실군과 엠에스테크(주)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공동 추진하는 '더블up!' 장학금 전달식이 25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개최됐다.

심민 군수, 김홍섭 엠에스테크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1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과 증서를 전달했으며, 해당 장학금은 올 한해 1인 기준 중학생 생 90만원, 고등학생 생 80만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된다.

심민 군수는 이날 전달식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어려운 가정 상황과 역경에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홍섭 대표는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를 위한 봉사과 공헌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블up!' 장학사업은 다 함께 행복에 오르자는 의미로 임실군과 엠에스테크(주)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동 추진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의 맛과 멋 우리가 알려요

'스마트 관광 홍보단' 발대... 19명 여행기자 활동 시작

고창군 주요 관광지들을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답사에 소개하는 '스마트 관광 홍보단'이 발대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스마트 관광 홍보단' 발대식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고창군수과 여행기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스마트 관광 홍보단에 대한 소개와 고창군 여행기자들의 수여하고 올해 활동방향과 답사일정에 대한 협의와 함께 질의응답시간이 마련됐다.

'스마트 관광 홍보단'은 앞으로 고창군 여행기자로 지역 내 주요 관광지들과 맛집, 숙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으로 취재하고 직접 답사하여 SNS 및 블로그 등을 통해 고창군을 널리 알리게 된다.

군은 공개모집을 통해 여행에 관심이 있는 관광 홍보단 19명을 선발했다.

스마트 관광 홍보단에게는 고창군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연말에 활동 우수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인터넷과 SNS가 활성화된 시대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창군에 찾아와 편안하게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 자원을 직접 체험하여 생산한 소식과 정보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박물관

육군 35사단,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육군 35사단은 최근 교통안전공단 전북 지부와 함께 해빙기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불철 야외활동 증가와 해빙기 도로환경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병들에게 교통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근무대장(소령 김동필)을 비롯한 백안진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장, 이춘호 교수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사전 위병소에서 출근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졸음운전예방, 2차 사고예방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과 물티슈 등을 전달했다.

이와 사전 대강당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최승선 교수가 '해빙기 차량사고 예방교육'이란 주제로 최근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분석, 차량사고 11대 중과실 처리기준 등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비근무대 김효철(48세) 준위는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장병들에게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펼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도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서 남계파출소 내고을안전지킴이 방문 격려

순창경찰서 남계파출소에서는 내고을안전지킴이(어르신자치경찰대) 사무실을 방문하여 올해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근무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담소를 나누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아낌없이 찬사를 보냈으며 남계파출소와 합동 근무 실시 등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것을 당부하였다.

어르신자치연합대장은 제9기 및 내고을안전지킴이에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인 근무가 아닌 내고창은 내가 지킨다는 다짐으로 금요일간 주말 순찰 및 기초치안질서를 위해 출선수범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규문 서장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임실경찰, 아동안전지킴이집 점검

임실경찰서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일제장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장비·점검은 관내 32개 지킴이집을 대상으로 3월2일(수)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하며, 이번 점검에서 기존 아동안전지킴이집 중 이전·폐업 등으로 사업지속이 불가능한 아동안전지킴이집은 해촉하는 대신 체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신규 지킴이집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고, 낡은 포지물에 대한 정비로 시인성 확보와 아울러 지킴이집 운영자 상대로 예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경찰, 경찰발전위 정기회 개최

남원경찰서는 최근 경찰서장, 각 과장 및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눈높이 치안을 위한 경찰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관내 치안소식 등을 공유하고 4대아 근절, 아동안전 등 남원경찰의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 발전적 의견을 청취하고 유기적 협력 체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경찰서장이 직접 남원경찰의 치안 상황에 대하여 위원들과 논의하고 경찰발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들어 치안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내달 10일까지 아파트·연립주택 등 17개소 대상...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도

임실군은 불철 해빙기를 맞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아파트 12개 단지, 연립주택 4개 단지, 시공 중 아파트 1개소, 총 17개소를 대상으로 ▲주요 구조부 균열·누수 ▲옹벽·축대 균열 ▲단기 내 배수로·맨홀 ▲공사잔재 철·성토부분 붕괴, 슬라이딩, 침하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험 요인 발견시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해 보수·보강 등 즉시 시정 조치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항은 '특별

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지정해 시설물의 이용제한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별도계획을 수립해 위험요소를 철저히 제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단지별 최대 2,500만원씩 지원하는 '2016년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용승인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기 내 도로 포장 가로등, 보안등 설치·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기타 부분의 유지·보수 등 공용부분의 하자보수 등을 지원해 주거여건 개선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봄철에는 동절기에 없었던 자반이 응해 및 침하되며 균열, 붕괴 등이 발생해 재해 발생률이 높다"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1년부터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2억9천만원을 투입해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사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오는 28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6개 시·군 기획실장 상생 발전방안 논의

동부권 6개 시·군(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기획실장이 한 자리에 모여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실무협의회를 25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가졌다.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는 2015. 4.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동부권 6개 시·군의 상생발전방안과 새만금 개발 위주로 된 국·도정 운영

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실질적인 동부권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구성되었다.

그 동안, 협의회는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 방향,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분야 확대, 동부권 농업소득분야 보조금 도비지원을 상향 등 동부권 주요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회의를 수차례 가졌었다.

이번 회의는 사전에 도의 의견을 수

렴하고 도 동부권 업무담당, 동부권 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어 동부권 현안 안전 해결에 좀 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는 연2회 상·하반기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문제, 중·장기 계획 마련 등 동부권 6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향후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 베리류 건강식품개발 박차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고려대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업무협약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베리류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려대학교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이사와 북분자연연구회, 오디연구회, 고창식품기업포럼 회원과 고려대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양 기관은 고창군의 특화산물 자원인 북분자·오디 등 베리류에 대한 건강기능식품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베리류에 대한 성분분석,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사업 및 미래과확부 전문문화연구개발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과 각종 대외행사에 고창군 제품의 공동 마케팅 추진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베리류

를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이 탄력을 받아 북분자 오디 등 베리류 산업이 제의 중흥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베리류를 이용한 건강식품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북분자 오디 등 베리류의 고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가공제품의 생산 등을 비롯해 중국 등 해외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출시하여 베리류 산업의 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 이사장인 박우정 군수는 "베리류의 가격 불안정과 원물수급 등에 베리류 산업이 어려움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개발 연구에 착수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협약 이후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지역 농가와 관련 식품기업의 소득증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